

Market behavior **엿보기****eBEST EDGE****글로벌 시장과 갭을 줄인 한국 중소형주****Investment Edge**

올해 중소형주가 매우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 한국시장 중소형주는 글로벌 중소형주와 비교해 보면 12년까지 계속 부진한 성과를 보였었다. 15년에 들어서 글로벌 시장대비 부진했던 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이제는 09년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중소형주 측면에서 보면 한국시장이 글로벌과 이머징 시장대비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형주 부진으로 한국시장 전체가 부진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밸류에이션(PBR기준)이 1배 수준으로 수렴한 이후 소형주와 중형주 밸류에이션은 동반 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및 이머징 시장과의 밸류에이션 갭 축소가 중소형주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중소형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갭 축소가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대형주도 밸류에이션 갭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배당증가 움직임으로 배당수익률/금리 비율이 S&P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Fed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미국 금리가 한국시장보다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 배당수익률/금리 비율은 더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매력은 하반기로 가면서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시장과 갭을 줄인 한국시장 중소형주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퀀트/투자전략****양해정**

02. 3779-0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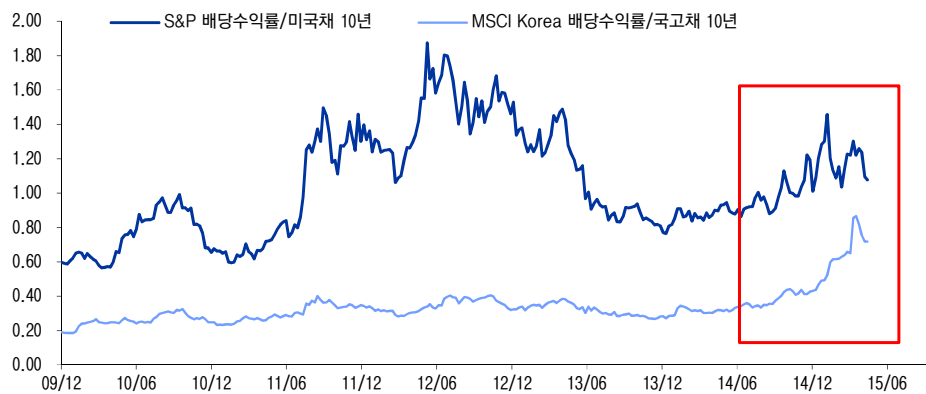
hjyang@ebestsec.co.kr

그림1 이머징 시장과도 겹을 줄인 한국시장 중소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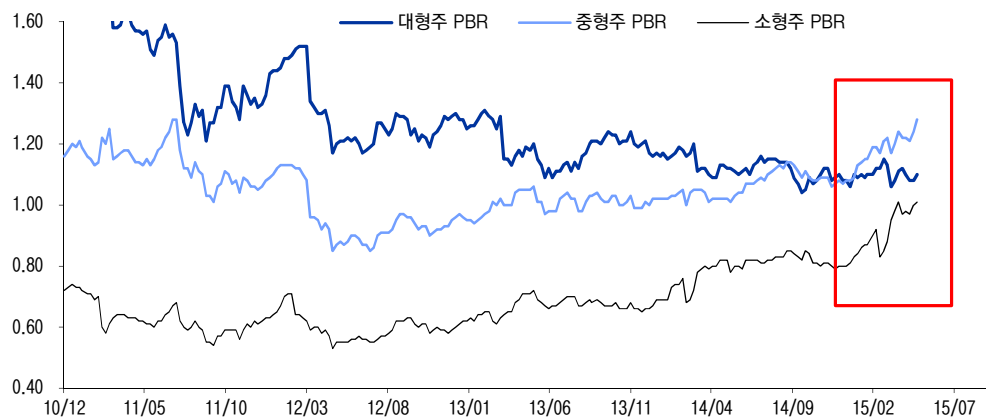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이베스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S&P와 겹을 좁히고 있는 배당수익률/금리 비율



자료: Bloomberg, Factset, 이베스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대형주 PBR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료: Quantwise, Factset, 이베스트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양해정)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